

만남

2017년 10월
통권 153호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나의 묵주기도 성월—————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주님은 위대하신 심판자—————	4
그리스도인의 유머	너무 심한 질문—————	7
교리	신앙의 재발견 12~13-----	8
기도 소개	섬김의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일반 : 노동자와 실업자

모든 노동자가 자기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보장받고, 실업자들은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도록 기도합니다.



나의 묵주기도 성월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열심히 레지오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묵주기도 100단을 바쳤다는 활동보고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묵주기도 100단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고, 모두들 그 친구를 대견해 하는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때부터였을 것입니다. 레지오 단원들 사이에서는 묘한 경쟁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 레지오 주회,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묵주기도 120단을 바쳤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다른 친구가 그 전주보다 더 많은 묵주기도를 바쳤다고 활동보고를 하는 이상한(?) 과열경쟁의 레지오 주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묵주기도의 숫자는 매주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일주일에 500단까지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경쟁에 동참했습니다.

일주일에 묵주기도 500단을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가는 버스를 타면서부터 묵주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학교까지 30분 정도 걸리니 빨리 돌린다면 15단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10분마다 묵주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8교시까지였으니까 30단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30분 동안 15단, 저녁을 먹고 나서 30분 동안 15단. 이렇게 하면 하루에도 75단 정도의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하루에만 100단 정도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경쟁은 700단까지 올라간 후, 너무 과열된 경향을 보이자 당시에 파견을 나와 있던 성인 단장님의 충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일이 훨씬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경쟁적으로 묵주기도를 바치진 않았지만 그 때의 습관은 저에게 일상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제가 신부가 되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신 심판자(시편 75편 3-11)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7장 “정의의 하느님”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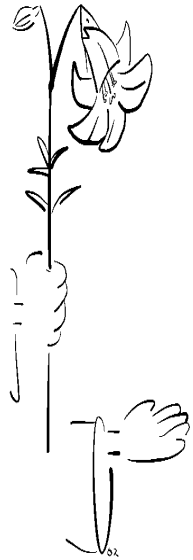
- 주님! 당신의 영광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 사랑이신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75편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71, 3 “내가 정한 때가 오면
나는 올바르게 심판하리라.
4 땅이며 그 모든 주민이 뒤흔들려도
내가 세운 그 기둥들은 굳건히 서 있다.
5 거만한 자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거만하게 굴지 마라.’
악인들에게 내가 말하였다. ‘뿔을 쳐들지 마라.’”
6 너희 뿔을 높이 쳐들지 마라.
고개를 치켜들고 무례하게 말하지 마라.
7 해 뜨는 데서도 해 지는 데서도 아니요
산 속 광야에서도 오는 게 아니니

- 8 오직 하느님만이 심판자,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 9 실상 주님의 손에 잔이 들려 있으니
향료 가득한 거품 이는 술이라네.
그 잔에서 따르시니
그들은 찌꺼기까지 훑아 마시리라.
- 10 그러나 나는 끝없이 기뻐 춤추며
야곱의 하느님께 노래하리라.
- 11 “내가 악인들의 뿔을 모두 꺾으리니
의인의 뿔은 드높여지리라.”



*2019년 3월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 하느님 앞에서 나를 들어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 어떻게 하면 내가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으며, 형제자매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모금을 위하여 여러 곳을 다녔는데, 하루는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환영하기 위하여 기차역으로 몰려와 기다렸고, 시간이 되어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박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리고 한참이 지나서야 저 뒤쪽에서 슈바이처 박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안이 병병해진 고향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3등 칸에서 나오십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4등 칸이 있어야지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마태 23,12)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께서서는 이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자신을 높이는 이는 결국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은 들어 올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껏 뽐내며 세상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사람들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운명이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7장 “정의의 하느님” 3, 4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너무 심한 질문

초등부 주일학교 2학년 반에서 보좌신부님이 어린이들에게 ‘저녁기도’를 설명해 주려고 맨 앞에 앉은 안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나의 부모님은 저녁에 뭘 하시지?” “저녁엔 저녁식사를 하시지요!” “그 다음에 뭘 하시니?” “그 다음엔 설거지를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엔, 아빤 맥주를 한잔하시고 신문도 읽으시고, 엄마는 텔레비전을 보시지요!” 보좌신부님은 ‘저녁기도’를 바친다는 말을 들으려고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시는데?” “그리고 주무시려고 침실로 가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랬더니 안나가 정색을 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신부님! ‘부모님께서 주무시려고 침실로 가고 난 다음에’ 대해 도대체 초등학교 2학년인 저에게 물어보셔도 되는 건가요?”

12. 교회의 세 가지 직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인류구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교회의 선교 사명으로 세 가지 직무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예언직과 사제직, 왕직’을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고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과 성전에 의하여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는 직무를 가지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의 ‘예언직’을 말합니다. 복음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에 따라 생활하고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교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통해 선교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대사제로서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을 모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제직에 참여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사제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승한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같은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죄를 용서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즉 교회는 성사집전과 전례행위를 통하여 사제직을 수행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사성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의 왕국은 이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참행복이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주권을 확립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야하는 직무를 가지는데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교회의 ‘왕직’을 말합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14-15)라고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특히 소외되고 고통 받는 이들,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선교 활동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언직, 사제직, 왕직을 올바르게 수행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평신도로서 이 세 가지 직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신도 사도직’이라 부르는데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도직 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신앙의 재발견 ❖

13.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입니다.”(요한 19,26-27)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모상입니다. 또한 신자 가정에는 예외 없이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라며 비난하거나 심지어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신 분이시기에 공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흠숭(欽崇)’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공경은 신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신앙심의 표출인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여러 경로로 형성되어 신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가톨릭교회는 네 가지 믿을 교리를 확정해서 반포해왔습니다.

첫째,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천주의 성모 : 431년 에페소 공의회 선포)가 되십니다. 둘째, 성모님께서는 동정의 몸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평생 동정녀’(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선포)로 사셨습니다. 셋째, 성모님께

서는 이미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셨기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무염시태 : 1854년 비오 9세 교황 선포)이십니다. 넷째, 성모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끝내시고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늘로 들어 올림’(성모 승천 : 1950년 비오 12세 교황 선포)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을 다하신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잉태를 받아들여 구세주를 낳으시고, 입히고 기르셨으며 십자가 곁에서 당신 아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실 때 당신도 모든 것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모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교회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와 교회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며 그분께 자녀다운 효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어머니다운 자비심과 연민으로 깊이 공감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 줄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비나이다”라고 ‘간구(懇求)’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전구(轉求)’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모님을 이런저런 청을 드리는 대상으로서의 신심에만 빠진다면, 신비스런 발현이나 기적과 같은 현상에만 현혹되어 여신(女神)처럼 숭배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그분께 꽃다발이나 초를 봉헌하는 일보다도 그분처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맞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일입니다.



섬김의 기도(상지종 베르나르도 신부님)

해맑은 잔잔한 웃음으로
어둠 밀어낼 햇살 보고픈 벼들을
섬기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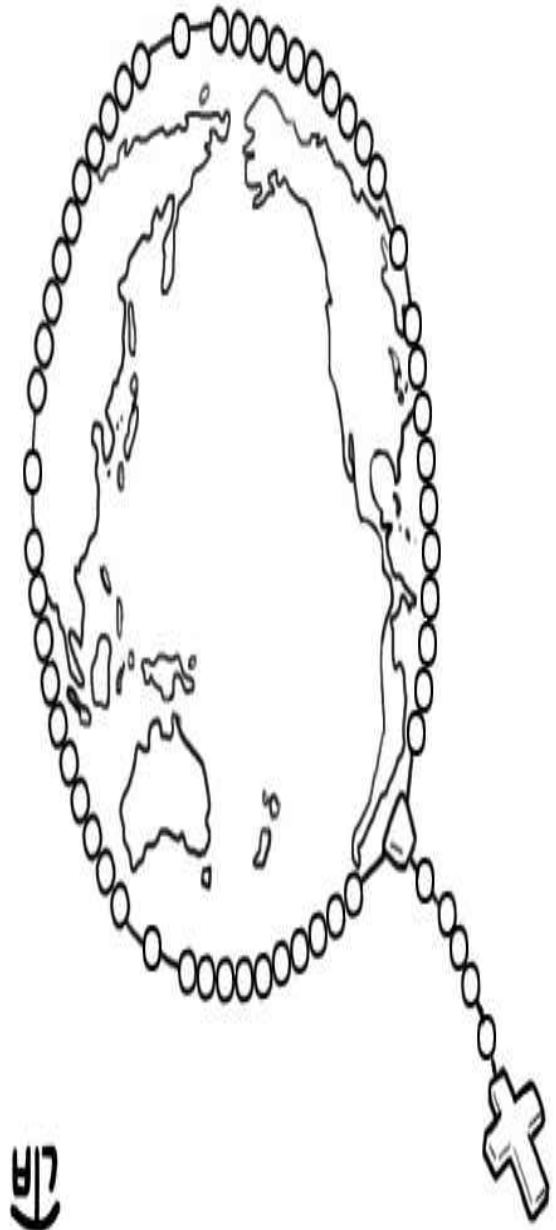
따스한 감미로운 목소리로
위로의 한마디 듣고픈 벼들을
섬기게 하소서.

체온 머금은 부드러운 손길로
외로움에서 벗어나고픈 벼들을
섬기게 하소서.

온 마음 담은 간절한 기도로
주님 보살핌 받고픈 벼들을
섬기게 하소서.

정성 가득한 작지만 귀한 나눔으로
주린 배 채우고픈 벼들을
섬기게 하소서.

불같은 정의로운 몸짓으로
짓밟힘에서 해방되고픈 벼들을
섬기게 하소서.



바오로딸콘텐츠

질문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느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본당에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의 범죄 수준의 잘못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분의 문제점에 관해, 작게는 주변 사람들을 모함하고 신부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의 문제에 관해 알렸지만, 저희 본당 신부님께서는 그저 서로 배려하며 살라고만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겐 아무 말씀도 않고 그냥 두십니다. 본당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단체장 직책까지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내막을 잘 모르는 신자들은 직장 생활도 바쁘는데,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남성 신자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사람과 단체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지 고민입니다.

답변 - 김정택 신부(예수회 · 서강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질문자가 보기에는 거의 범죄 수준의 잘못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며, 주위 사람들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히면서도 외적으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단체장 직책까지 맡는 철면피 같은 사람을, 본당신부님은 감싸 돌면서 “서로 배려하고 살라”고만 하시니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성당에 나가서 그 사람과 단체활동을 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참으로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만 숨을 고르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신앙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은 바로 하느님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을 닮아서, 그분이 보여주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느님께서서는 인류를 죄악에 얽매인 채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마리아를 선택하시어 인간 구원자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무거운 죄에 대해 하느님께서서는 완전한 용서로 응답하

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주님의 자비는 언제나 어떠한 죄보다도 더 크므로 그 누구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자비의 얼굴」 3항)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하느님의 고유한 본질입니다. 바로 그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전능이 드러납니다”(같은 책서 6항에서재인용)라고 하셨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분노에 더디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말로 자주 하느님의 본성이 묘사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여러 비유들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본성을 연민과 자비로 끝까지 용서하시는 본성으로 보여 주십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서는 용서를 해 주실 때에 더욱 기뻐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자비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으로 드러나며, 마음속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고 용서를 통하여 위로를 가져다주심”(「자비의 얼굴」 9항)을 강조 하십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던 칼 융(Carl Jung)은 모든 사람 안에는 다 그림자(shadow)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그림자는 자아(ego)의 어두워진 부분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잘 들여다보고 이를 밝게 닦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의 그림자는 쉽게 다른 사람에게 투사(projection)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둡고 열등한 그림자를 상대방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런 상대방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기회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안에 있는 어두운 면을 상대방에 투사해서 과도하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성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간곡히 부탁하시고 계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나도 내 안에서 실천하면서 신앙인으로서의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은총 그릇(살레시안 칼럼에서)

예전에 휴가 중에 대구 친정 본당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제의방에서 기다리다가, 복사를 서시던 어르신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매년 친정 본당에 갈 때마다 뵙는 어르신입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복사도 열심히 서시는 분인데 그분이 생각하는 ‘은총론’ 수업을 짧게나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하느님께 감사할 줄 몰라.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고 하느님을 위해 뭘 하려고 하지 않아서 안타깝고 답답해.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은총을 받기 위한 그릇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은총을 담을 그릇은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만 하니 하느님께서 어찌하시겠어. 또, 은총을 담을 그릇은 작은데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니 하느님께서도 답답하실까. 자신의 그릇을 키워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재는 저만큼 주고 나는 왜 이것 밖에 안 주냐!’며 하느님께 따지기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지.”

그 말씀이 미사 내내, 집에 돌아가서도 남았습니다. 신앙의 연륜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 머물며 은총을 묵상하고 체험하지 않았다면 깨달을 수 없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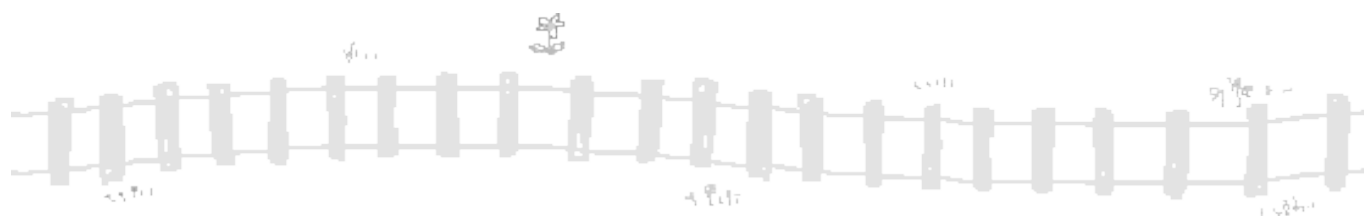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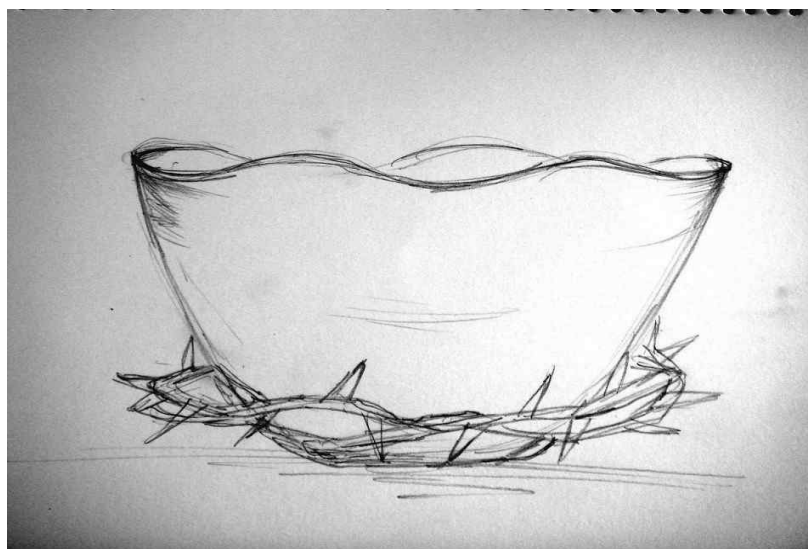
두 주걱 분량을 담을 수 있는 밥그릇에 다섯 주걱의 밥을 담을 수 없습니다. 1리터 들이 병에 물 2리터를 담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양을 담기 위해서는 그것에 합당한 그릇과 물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합당히 받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무상으로 내려오는 선물이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빗줄기와 같아서 그분의 은총에서 배제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풍부히 내려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은총을 담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얼마나 큰 은총 그릇을 준비하는가, 아니면 크기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은총 그릇에 만족하며 사는가는 인간의 편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큰 그릇을 준비하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작은 그릇을 가

지고 있다고 질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은총 그릇의 크기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은총그릇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니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이 큰 은총을 가지도록 바라십니다.

큰 은총 그릇을 가지려는 이는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주지 않으신다고 하느님께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작은 그릇을 크게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은총은 인간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해 주거나 명예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총은 하느님을 알도록 이끌어주고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도록 힘을 얻으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움을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 기쁘게 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믿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 큰 그릇을 얻도록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해 주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그 혜택을 더욱 충만히 얻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은총 그릇을 크게 만들도록 애써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와 선행, 용서와 봉사, 사랑과 너그러움을 통해서 말입니다.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 레 사 (St. Teresa)	김 점 님 최 영 숙	18일	루 카 (St. Luke)	현 안 태 이 동 빈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 로 메 (St. Salome)	정 명 옥
	프 란 츠 (St. Franz)	김 기 현	23일	이냐시오 (St. Ignatius)	윤 용 기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양 현 호 김 인 순	28일	시 몬 (St. Simon)	김 동 수 리 간 재 최 화 영 최 순 남
	프 랑 크	김 기 년			
7일	로 사 리 아	송 화 현			
16일	말가리다 (St. Margaret)	강 순 행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리지외의 데 레 사 (St. Teresa)	김영자(B) 황옥순(H)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아빌라의 데 레 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St. Francis) 프란치스카 (St. Francisca) 프 랑 크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윤주해(B) 안수경(O) 정유진(H)	18일	루 카 스 (St. Luke)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7일	로사리아	조현영(B)	30일	루 실 라	권명옥(O)



❖ 10월 성가번호

10월	입 당	봉 헌	성 제	파 견
1일	292	211	506	271
8일	25	217	178	252
15일	21	512	170	248
22일	가 족 미 사			
29일	46	212	500	260

❖ 10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1일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허길조(안드레아스) 허명자(가밀라)	이현묵(요셉) 최장용(레오)	요셉 마리아회
8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전 신자
15일	정명옥(살로메) 김애란(세실리아)	김잔디(아그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 학교	1구역
22일	가 족 미 사			2구역
29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세실리아)	이현묵(요셉) 최장용(레오)	3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8월27일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계(€)	271,15	294,50	259,64	244,07
헌납금	125,00	150,00	190,00	150,00
구좌입금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총 640.00 * 헌납금 총 합계 1,255.00			

❖ 자진헌납금 ❖

2017년 8월 23일 — 2017년 9월 17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현금납부 :

배성우,	정정숙,	김기연,	이정은,	현영애,	김민옥,	김민수,
박성아,	신옥희,	심동근,	채규순,	한선지,	윤예진,	한규호,
서세원,	최순남,	최승진,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중지,	이공종,	이석우,	이정수,
이수웅,	김용일,	김건,	김경미,	김형웅,	우동천,	육종인,
진윤희,	문경희,	한말조,				

구좌입금 :

Moon- Sebastian,	SooJin, (문수진)	박종래,	김유석,	방조영자,
최화영,	김동수,	김원자,	최성자,	백정선,
홍경영,	허두옥,	서유미,	이명원,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혜,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권지연,		
남궁춘배,	허길조,	영희 Eggerstedt,	옥수 Ranitzsch,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contents.pauline.or.kr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입니다. 목주기도가 생활의 습관이 되는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매 주일, 오후 2시 15분, 주일미사 전에는 꾸리아 주관으로 목주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예비신자 교리반은 10월 1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습니다. 예비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신자분들도 초대합니다.
3. 한가위(추석) 합동위령미사는 10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친척들을 기념하실 분들은 사진이나 초나 꽃을 가져오셔서 제대 앞 공간에 놓아 주십시오. 미사 후에는 공동체 식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각 가정에서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4. 10월 9일(월)부터 10월 13일(금)까지 화란•독일 사목자 모임이 베를린에서 있습니다. 평일미사는 남영우(스테파노) 신부님께서 봉헌하실 예정입니다. 사목자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10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레지오 단원교육이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점심식사까지 포함된 시간입니다. 레지오 단원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6. 10월 22일 일요일은 Welt Missionssonntag입니다. 2차 헌금이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날, 가족미사가 봉헌됩니다.
7. 10월 28일 토요일에는 예비신자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뮌헨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성지순례에 관심 있는 신자분들도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지순례 비용은 신자분들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8. 가정방문과 축복은 10월에도 계속 됩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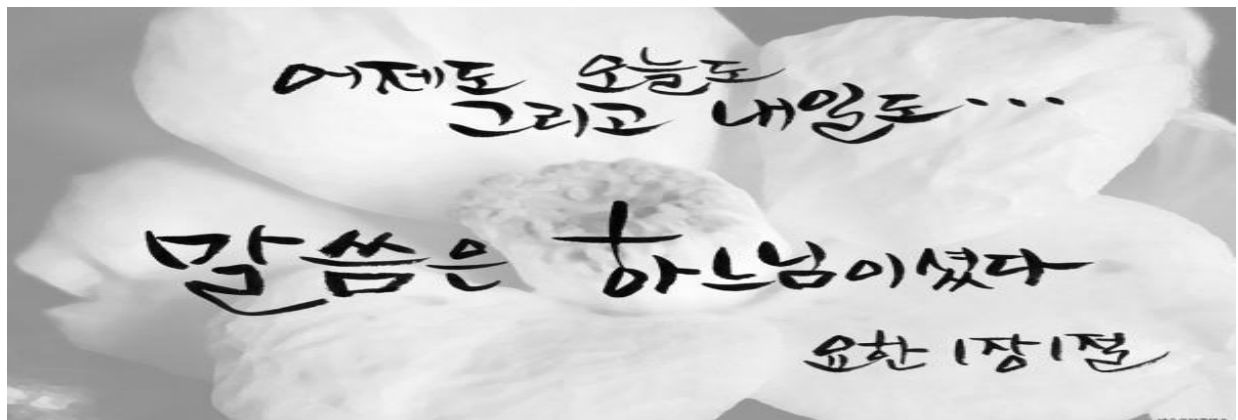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저희 공동체에 Jacobs University Bremen에 유학 오신, 이유나(유스티나) 자매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저희 공동체와 함께 하는 은총의 신앙생활과 아름다운 유학시절을 기원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9월 정기미사는 9월 9일(토), 연중 제23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으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독일 청년 Jän 형제님이 이 날 미사에 함께 참례하였습니다.
2. 9월의 순교자 성월 공동체 기도모임은 29일(금) 17:00시에 시내 Johannis Kirche Andachtskapell에서 개최합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숙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 역 장 모 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감	최 영 자 파 울 라	040/ 3865 3332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후 Pr. (청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숙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숙 안 나		6729549
청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0월 중 행사 예정표(목주기도 성월 - 전교의 달)

일	요일	전례 일	단체 행사	비고
1	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선교의 수호자) 대축일(연중 제26주일)	사목협의회	
2	월	수호천사 축일, 노인의 날		
3	화	개천절		
4	수	한가위		
5	목		꾸리아	
6	금			
7	토	목주 기도의 동정 마리아		브레멘 공동체
8	일	한가위 위령미사, 한로		강당
9	월	한글날		독일, 화란 사목자 모임 장소: 베를린
10	화			
11	수		요셉, 마리아 소공동체	
12	목	순교자 박대식 빅토리노 치명일(1868년)		
13	금		2구역 소공동체	
14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5	일	연중 제28주일	레지오 단원 교육 청년 소공동체	
16	월			
17	화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18	수	성 루카 복음사가 축일		
19	목			
20	금			
21	토			하노버 공동체
22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연중 제29주일, 전교주일)	가족미사	2차 헌금
23	월	상강		
24	화			
25	수			
26	목		연령회	
27	금			
28	토	성 시몬과 성 유다(타대오) 사도 축일 (교정의 날)	예비신자 성지순례	
29	일	연중 제30주일		
30	월			
31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 카 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발행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테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